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438.2	18.3	122,000	0.0	-14.4	-5.0	27.2	85.0	40.8	0.6	0.6	0.7	1.4
현대로보티스	6,921.8	21.9	425,000	-0.6	0.0	-1.8	11.5	5.7	4.8	0.8	0.7	14.1	14.7
현대알렉트릭	789.9	6.7	77,400	0.8	-6.4	-32.7	-32.1	7.3	6.4	0.7	0.6	9.3	9.7
현대건설/기계	1,762.9	8.3	178,500	2.9	0.6	-5.8	5.6	11.3	8.4	1.3	1.1	11.7	13.9
삼성중공업	3,306.6	15.9	7,340	-0.1	-13.0	-4.0	13.5	46.3	23.0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878.5	4.2	26,850	2.1	3.1	49.6	93.2	9.9	11.8	0.9	0.8	9.0	6.8
현대미포조선	1,774.0	10.2	88,700	-0.6	-19.4	-12.6	12.7	19.1	13.8	0.7	0.6	3.6	4.8
한진중공업	344.1	6.7	3,245	2.2	-2.7	-7.0	-2.0	65.3	163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374.7	27.4	89,400	5.3	19.7	63.1	64.3	15.8	154	22	19	14.6	13.3
두산밥캣	3,137.8	26.8	31,300	0.3	-5.3	-12.6	-12.6	11.5	108	0.9	0.8	7.4	7.6
현대로템	1,547.0	26.1	18,200	3.1	17.8	6.7	-2.9	23.5	160	1.0	1.0	4.5	6.3
하이록코리아	324.0	48.1	23,800	-0.2	-0.8	-5.2	5.8	10.8	99	0.9	0.9	8.8	9.0
성광밴드	333.2	16.5	11,650	1.7	-3.3	4.5	16.7	1,029.8	41.8	0.7	0.7	0.1	1.8
태광	343.2	12.7	12,950	0.4	12	-7.5	7.5	77.3	37.8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708.7	10.2	16,050	5.9	5.9	2.9	4.6	13.8	102	0.6	0.6	4.1	5.1
두산인프라코어	1,902.5	12.6	9,140	3.9	-3.8	-15.0	5.2	7.8	6.9	1.0	0.9	13.1	13.3
두산엔진	402.4	3.4	5,790	5.9	1.6	40.5	57.1	-79.7	582	0.8	0.7	-0.9	1.3
한국항공우주산업	4,561.8	16.3	46,800	1.5	-7.5	-12.2	-1.4	37.3	255	3.7	3.3	9.8	13.2
한화테크윈	1,401.8	12.7	26,650	0.8	-8.9	-20.9	-25.0	25.0	152	0.6	0.6	2.5	3.9
LIG넥스원	1,003.2	10.7	45,600	-0.3	-3.4	-14.6	-23.7	18.6	129	1.6	1.4	8.6	11.4
태웅	366.1	3.9	18,300	1.9	-7.1	-15.3	-5.4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86.5	5.6	6,910	0.7	-15.3	8.6	36.8	-50.8	72.7	22	21	-4.3	3.1
한국카본	253.2	14.4	5,760	-0.2	-15.5	-9.9	7.5	47.8	258	0.8	0.8	1.7	3.1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9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오션리그와 드릴십 인도 연기하고 계약금 증액

삼성중공업은 오션리그에서 수주한 드릴십 1척 인도연기 및 계약금 증액에 합의했다고 공시함. 해당 드릴십은 2013년 8월 5.5억달러에 수주했으나, 납기를 두 차례 연장했고 이번에 인도일자를 2019년 9월로 재연장함. 계약금도 7.2억달러로 증가함. 삼성중공업에 남은 드릴십은 총 5척으로 알려짐. (이데일리)

Court nod for Seadrill refinancing

시추업체 Seadrill은 지난 9월 신청한 Chapter 11에 대해 미국 파산법원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다고 알려짐. 이해관계자의 만장일치로 회생계획이 인가됐고, 110억달러의 부채를 조정할 계획임. 회생계획에는 만기연장 57억달러, 출자전환 23억달러, 신규자본 조달 10.8억달러 등이 포함됨. (Upstream)

JP Morgan lowers capesize recovery expectations

JP Morgan은 Capesize 올해 운임을 기준 추정치에서 4,843달러 낮춘 하루 15,157달러로 전망함. 내년 운임도 16,500달러로 낮춰서 전망했지만, 2020년은 8.5천달러 오른 25,000달러로 전망함. 2020년 환경규제에 따른 연료비 상승으로 선박들이 저속운항을 하게 되면서 운임증가를 전망함. (TradeWinds)

플라리스쉬핑, 中에 VLOC 발주

플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이 공동으로 중국 조선소와 32.5만DWT급 VLOC에 대한 LOI를 체결했다고 알려짐. 조선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Yangtzejiang과 Qingdao Beihai 조선소로 예상됨. 작년 플라리스가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등급 선박의 선가는 8천만달러이나, 중국 조선소는 7.4천만달러로 알려짐. (선박뉴스)

Capesize rates given a boost from Brazil

브라질 채광활동 증가와 중국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Capesize 운임이 하루에 약 20% 증가한 11,620달러를 기록함. 1분기 브라질에서 폭우로 철광석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연간 목표량은 달성을 계획임. 또 최근 중국에서 조강 생산량과 부동산투자 증가로 철광석 가격이 강세를 나타냈다고 알려짐. (TradeWinds)

Boxship scrapping could sink to lowest since 2011

Alphaliner에 따르면 2018년 컨테이너선 폐선량은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임. 올해 현재까지 21,778TEU의 컨테이너선이 폐선됐고, 총 12척으로 알려짐. 연간으로 2018년 폐선량은 20만TEU로 전망되며, 이는 작년 폐선량인 654,862TEU 대비 급감한 수치임.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4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4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4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